

광복 후 중국동북지역에서 朝鮮義勇軍의 개편과 변천 과정

孫春日*

-
- | | |
|-------------------------------|--------------------|
| I. 머리말 | IV. 동북 조선족 집단거주지역의 |
| II. 중국 華北지역에서 東北지역으로 이동
배경 | 政治土匪 토벌 |
| III. 중공 東北民主聯軍 소속으로 개편 | V. 東北民主政權 건설 참여 |
| | VI. 북한 인민군에의 합류 |
| | VII. 맺음말 |
-

I. 머리말

1942년 7월 중국 太行山에서 창설된 朝鮮義勇軍은 조선의용대의 후신으로, 중국 관내지역 특히 화북지역에서 中國共產黨(이하 중공) 및 八路軍과 손잡고 일제와 싸워 수 많은 전공을 세운 조선인부대인 바, 그 용맹성은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명성이 높았다. 조선의용군이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운 목적은 중공 및 팔로군과 힘을 합쳐 일제를 중국대륙에서 몰아내는 동시에, 그 여세를 몰아 식민지 조선을 해방하고, 조선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까닭에 1945년 8월 일제의 투항이 임박하자 팔로군 사령 朱德은 조선의 용대를 동북지역으로 진출시켜 소련군과 합작하여 한반도와 동북지역에 있는 조선인들을 해방시키는 전투에 참가하도록 명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용군은 한반도로 진출하지 못하였고, 소련군과의 연합작전 계획도 무산되었다. 그 대신

* 중국 연변대학 민족연구소 교수, 역사학 전공.

중국 동북지역에 남아 중공 산하 東北民主聯軍으로 개편되어 동북지방의 ‘민주정권’ 건설에 참가하였다

그간 학계에서는 조선의용군의 창설 과정과 화북일대에서 활동한 상황에 대해 비교적 큰 연구성과¹⁾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들이 동북지역으로 진출한 후, 중공 동북민주연군으로 개편되는 과정과, 동북 朝鮮族集團居住地域(이하 집거지역)에서 지방정권 건설에 참가한 상황에 대해 아직까지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의용군 주력부대를 버리고 북한으로 들어 간 武亭 등 소수 지휘관을 제외하고, 동북지역에 잔류하였던 대부분의 대원들은 다시 중국 국내전쟁에 참가하여, 중공을 도와 조선족 집거지역에서 政治土匪를 숙청하고, 조선족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였으며, 동북지방정권 건설과 中華人民共和國 수립을 위해 공헌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조선의용군이 동북지역에 남아 동북민주연군으로 개편되어 정치토비를 숙청하고, 둘째, 지방정권 건설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전후하여, 조선의용군 후신 부대들이 북한으로 건너가 朝鮮人民軍으로 변신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II. 중국 華北지역에서 東北지역으로 이동 배경

조선의용군은 중국 화북지역에서 활동하던 팔로군 소속의 조선인 항일무장대오였다. 1942년 7월, 중공이 광범한 항일민족통일전선을 추진하던 시기, 대항산에서 소집된 華北朝鮮靑年聯合會 제2차 대회에서는 화북조선청년연합회를 華北朝鮮獨立同盟(이하 독립동맹)으로, 조선의용대를 朝鮮義勇軍으로 개편하였다

독립동맹 강령에서는 “본 동맹의 목적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뒤

1) 조선의용군에 관한 연구성과 중에서, 한국학계의 주목할만한 성과로는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나남, 2001); 염인호, 「해방 후 중국동북지방 조선인부대의 활동과 북한 입국」,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상도, 「조선의용군의 위상과 동방각민족반파시스트동맹의 관계」, 『역사와 현실』, 44(2002);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 전쟁』(명지출판사, 2000) 등이 있다. 다만 김중생의 연구는 사료 출처가 명확치 않아 적지않은 의문점을 낳는다.

있고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며 조선민주공화국을 세우는 것이다”²⁾라고, 조선의용군의 사명을 명확히 하였다. 또 조선의용군 ‘7대 임무’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첫째, 혁명운동을 강화하고 혁명무장대오를 건립하며 혁명조직을 발전시키고 반일 혁명통일전선을 확대하며, 둘째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일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세계반파쇼운동을 지원하고 조선민족의 이익을 수호한다는 것이었다

조선의용군은 중공의 지휘 하에 팔로군과 연합하여 일본침략세력과 싸웠다. 조선의용군의 주요 작전수단은 외곽에 항일운동단체를 조직하여, 반일 뼈대를 뿌리는 등 반전 홍보를 하고, 이를 통해 일본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일본군 내부를 와해시키는 것이었다.

1945년 8월 11일 세계반파쇼전쟁의 정황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팔로군 총사령 주덕은 팔로군의 진로에 대해 7가지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 중 제6호는 팔로군 소속인 조선의용군에게 내려진 것인데, “중국과 조선경내에 들어가서 조선인민을 해방하기 위해 소련군과 연합작전을 하도록,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현재 화북에서 대일작전을 벌이고 있는 조선의용군 사령 武亭, 부사령 朴孝三·朴一禹는 즉시 소속부대를 통솔하여 팔로군 및 이전 東北軍 각 부대와 함께 동북지방으로 출병하여 敵僞部隊를 소멸하며, 동북지역에 있는 조선인민을 조직화하여 조선을 해방하는 임무를 완성하라”³⁾는 내용이었다.

주덕 총사령이 명확히 지적하였는 바, 중공 중앙에서 조선의용군을 동북지역에 파견한 목적은 “중국과 조선경내로 들어가 조선인민을 해방하기 위해 소련군과 연합 작전”하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조선의용군은 동북지역과 조선에서 소련군과 함께 일본군과 교전하는 이중의 사명을 갖는 것이다. 즉 소련군과 연합하여 먼저 동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을 해방하고, 나아가 한반도로 진출하여 전체 조선인민을 해방하는 것이었다.

주덕 총사령의 명령에 따라, 9월부터 태항산 부근에서 활동하던 팔로군 전방총사령부 소속 조선의용군과 연안에 있던 조선군정간부학교 학생 수백명은 동북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들은 황하를 건너고 만리장성을 넘어 陝西·山西·內蒙古·河

2) 崔海岩, 『朝鮮義勇軍第1支隊』(遼寧民族出版社, 1992), 12 쪽

3) 「연안총부 명령 제6호」(1945년 8월 11일 12시), 『朱德元帥豐碑永存: 中國人民革命軍事博物館陳列文獻資料選』(上海人民出版社, 1986), 254 쪽.

北省 등을 지나, 10월 하순 瀋陽에 집결하였다⁴⁾

그러나 조선의용군은 당시 복잡한 국제관계에 의해 분열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11월 7일 全軍大會를 소집하여, 조선의용군의 전투 임무와 향후 거취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회의는 조선의용군 창건 이래 전체 장병이 자리를 함께 한 마지막 대회이기도 하였다. 武亭⁵⁾사령은 중공중앙의 지시에 따라, 소수의 독립동맹 간부와 조선의용군 지휘관이 조선에 파견되고, 대부분의 대원은 동북지역에 남아 ‘민주정권’ 건설에 참가한다고 연설하였다. 그는 또 전체 대원들에게 동북 각지에 진출하여 조선족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무장대오를 확충하고, 중국혁명과 조선혁명을 위해 튼튼한 기초를 닦도록 부탁하였다.

대회 결의에 따라, 독립동맹 주석 김두봉, 조선의용군 사령 무정 등 전체 집행위원과 70여 명의 간부들은 입북하여 북한정권 건설에 참여하였으며, 대부분의 조선의용군 대원들은 동북민주연합군에 소속되어 中共東北局의 지도 하에 동북지역

4) 崔海岩의 통계에 의하면, 이 때 심양에 도착한 조선의용군의 총수는 약 7백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 가운데 약 백여 명은 태항산에서 출발한 병력이고, 3백여 명은 晉冀豫와 제2차로 태항산에서 북상한 병력이며, 나머지 3백여 명은 조선의용군사령부 총부와 연안 조선혁명군정학교의 학생들이다(崔海岩, 앞의 책, 18쪽). 한편 달리 김중생은 만주에 도착한 조선의용군을 약 850 명에서 860 명으로 추정하였다. 그 가운데 심양에 처음으로 도착한 400 명은 조선의용군 冀東支隊와 瀋陽에서 지하공작을 하던 사람들을 합친 것이고, 다음으로 도착한 300 여 명은 연안 군정대학과 독립동맹 지도부 그리고 王子仁이 인솔한 20명을 합친 것이며, 세 번째로 太行山支隊 200명과 북상 도중 합류한 華中支隊 80여 명이며, 나머지는 新四軍 소속 및 山東·張家口·五臺山 등 지구에서 활동하던 조선의용군 등을 합친 것이라고 하였다(김중생, 앞의 책, 78~79쪽).

5) 무정(1905~1952)의 본명은 金武亭이다. 함경도 경성군에서 출생하여 서울에서 자랐다. 1923년 중국으로 건너와 이듬해 북방군관학교(東北講武堂이라고도 함)에서 포병학을 전공하였다. 1925년 중공에 가입하여, 북벌전쟁에도 참가하였으며, 1931년 5월 중국 江西省 贛頭에서 紅軍 軍事委員會 砲兵團이 설립되면서, 무정은 제2임 단장이 되었다. 1934년 10월 유명한 ‘2만 5천리 長征’이 시작된 후, 그는 중공중앙 군사위원회 직속 포병부대의 지휘관으로 많은 공로를 세웠으며, 특히 팔로군 부사령 彭德懷의 깊은 신임을 얻었다. 1938년 초, 그는 다시 팔로군총사령부 포병단장을 맡고 中央軍事委員會 위원이 되었다. 1941년 8월 山西省 桐峪에서 조선의용군 간부훈련반을 조직하고 교장을 맡았다. 1945년 11월 북한으로 들어간 후, 북조선 도행정국 부위원장·인민보안간부학교 포병교무장·인민군포병 사령·민족보위성 부상·제2군단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1950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조선노동당 제2차 3중 전원회의에서 ‘전쟁 중 엄중한 착오’를 범하였다는 처분을 받고, 예비군단인 제7군단장으로 전직하여,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인 萬浦에 있었다 우울증 증세를 보이던 그는 고질적인 위장병이 발병하였고, 당시 북한에 있던 중국지원군 총사령 팽덕회의 도움으로 중국 長春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되지 못하고, 1952년 10월 북한으로 돌아가 사망하였다.

의 중국 국내해방전쟁에 참가하였다.⁶⁾

왜 조선의용군 전체가 입북할 수 없었는가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첫째 소련군과 북한 방면에서 포츠담협의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하였을 개연성, 둘째, 중국해방전쟁의 필요성, 셋째, 동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0 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자신의 무장대오가 필요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첫째 이유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있다. 1945년 7월에 열린 포츠담회의에서 한국의 ‘信託統治’ 문제가 영국의 반대로 인해 공개적인 토론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7월 24일 포츠담에서 열린 미·영·소 3국 수뇌회의에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외부의 무장세력이 조선으로 입국하는 데 반대한다는 합의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⁷⁾ 어쨌든 동북지역에 남게 된 조선의용군은 중공 동북민주연군에 소속된 조선의용군 제1·3·5·7지대로 개편되어, 남만·북만·동만 등지로 이동하여, ‘정치토비’를 숙청하고, 조선인들을 도와 지방 민주정권을 건설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III. 중공 東北民主聯軍 소속으로 개편

조선의용군은 심양에서 조선으로 나가려던 목적이 좌절되자, 동북3성 조선인 집단거주지역으로 자리를 옮겨 중공을 도와 지방 ‘민주정권’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 부대를 제1·3·5·7지대로 개편하였다.

제1지대는 1945년 11월 10일 瀋陽에서 성립되었으며, 지대장에 金雄 정치위원에 方虎山이었다. 병력은 1,600여 명이었으며, 주요 활동지역은 남만지구였다.⁸⁾ 제1지대는 남만 조선인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와 영향력을 확대한 결과, 조선인들의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남만 조선인사회에서 조선의용군의

6) 政協 延邊朝鮮族自治州 文史資料委員會(編), 『延邊文史資料 第9輯: 解放初期 延邊』(遼寧民族出版社, 1999), 27쪽.

7) 이종석, 『북한·중국 관계(1945~2000)』(중심도서, 2000), 40쪽 참조.

8) 崔海岩, 앞의 책, 26쪽.

성망이 제고되었으며, 많은 조선족 청장년들이 조선의용군에 가담하였다

11월 말 제1지대는 심양을 떠나 無順·淸原·梅河區 등지를 거쳐 1946년 1월 초 통화지구로 도착하였다. 그 사이 병력은 5,000여 명으로 증가하였으며,⁹⁾ 1949년 봄에는 약 1만 2,000명으로 늘어났다.¹⁰⁾

중국국내전쟁의 형세에 따라 조선의용군 제1지대의 호칭도 자주 바뀌었다. 1946년 봄 국민당이 적극적으로 내전을 준비할 때 東北民主自治軍은 東北民主聯軍으로 개칭하였다. 이에 따라 1946년 2월 16일 동북민주연군 總部는 제1지대를 ‘李紅光支隊’로 호칭을 바꾸었으며, 김웅을 사령원에, 방호산을 정치위원에 임명하였다. 같은 달 19일 통화시에서 ‘楊靖宇支隊’, ‘리홍광지대’ 성립대회가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중공보안사령인 何長工이 총부의 명령을 낭독하였으며, 정치위원 吳溉之가 軍旗를 수여하였다. 리홍광지대는 성립 후 통화 일대에서 지방 ‘민주정권’을 보위하고 匪賊을 토벌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12월 초 리홍광지대는 재차 민주연군 독립4사로 개칭되었으며, 1948년 11월에는 다시 중국인민해방군 제166사로 개편되었다.¹¹⁾

조선의용군 제3지대의 주요 활동지역은 북만이었으며, 지대장은 金澤明(李相朝), 정치위원은 주덕해였다. 심양에서 북만으로 떠날 무렵, 제3지대 인원은 19명뿐이었고, 김택명을 제외하고 모두 연안 조선혁명군정학교 출신이었다.¹²⁾ 1945년 11월 19일 하얼빈에 도착하자 즉시 제3지대의 무장대오를 확충하는 활동에 착수하였다. 제3지대의 기본적인 무장대오는 김택명이 이미 조직해 놓은 하얼빈보안총대 조선독립대대였다. 지대장 김택명은 원래 조선청년전위동맹의 중심인물이었다. 그는 중공에 가입한 다음 조선의용군에서 활동하였다. 1942년 봄 중국 당조직과 독립동맹의 지시로 동북지역에서 지하공작을 전개하였다. 일제가 투항한 직후인 1945년 8월 20일, 그는 하얼빈에서 독립동맹 북만특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당시 하얼빈에 있었던 東北抗日聯軍 李兆麟부대와 연계하여 中共松江省工作委員會

9) 주홍성, 「전투의 여정을 회억하여」, 『이홍광지대』(遼寧民族出版社 1992), 8 쪽

10) 崔海岩, 앞의 책, 26쪽.

11) 崔海岩, 앞의 책, 134~135쪽. 이홍광지대가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아 지대장 김웅이 북한으로 가 버려 王子仁(崔仁)이 후임 지대장을 맡았고, 166사로 발전한 후에는 중국인민해방군 제2사 師長을 지낸 劉子儀가 사장을 맡았다.

12) 李義一·徐明助, 『조선의용군 3지대』(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1987), 6 쪽

의 지휘를 받았다.

바로 그의 지휘 하에 독립동맹 북만특별위원회는 북만지구에서 적극적으로 병력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延壽·尙志·阿城·五常·巴彥·木蘭·東興·綏化縣 등지에 간부를 파견하여 조선족 청년을 대상으로 참군을 독려하였는데, 한 달도 안되는 사이에 300여 명의 조선족 청년을 하얼빈에 집결시켰다. 그리하여 9월 25일 조선족 대원들로 구성된 하얼빈보안총대 조선독립대대가 성립되었으며, 휘하에 3개 중대를 두었고 김택명이 대대장 및 정치위원을 겸하였다. 11월 중순에 이르르면 대오는 600여 명으로 늘어났다.¹³⁾

광복 직후 하얼빈시의 사회상황은 매우 복잡하였다. 1945년 11월 16일 국민당은 하얼빈을 ‘점수’하기 위해 새로 편성한 제27군을 비행기로 실어왔다. 이에 중국 松江省委員會와 松江軍區는 濱縣으로 철수하였다. 조선독립대대도 빈현의 斐克圖라는 지방으로 이동하였다. 11월 25일 이전 보안총대 조선독립대대를 조선의용군 제3지대로 편입시켜, 3개 대대와 교도대·경위대와 위생대로 재편하였다. 당시 제3지대의 병력은 약 3,000여 명에 달하였다.¹⁴⁾ 이들은 또 延壽·尙志·巴彥·濱·方正·綏化·綏陵·德都·五常縣 등지 조선족청년으로 縣 소속 무장대대 혹은 중대를 조직하였다.

제3지대 또한 중국 국내전쟁의 형세에 따라 소속이 자주 바뀌었다. 1946년 12월 제3지대는 송강군구 직속의 ‘독립제8단(團 이하 같음)’으로 개칭되었다. 1947년 3월 또 吉東警備司令部의 조선족부대와, 묵단강으로부터 온 조선족부대인 ‘독립14단’과 합병하여 東北人民解放軍 독립11사가 되었다. 1948년 11월 동북민주연군이 제4야전군으로 개칭됨에 따라, 제3지대는 다시 중국인민해방군 육군 보병 제164사 491단으로 편입되었다.¹⁵⁾

동만지구로 이동하던 조선의용군 제5지대는 지대장 李益星, 정치위원 朴一禹, 참모장 全宇 등의 인솔 하에, 1945년 11월 21일 열차편으로 길림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소련군이 더 이상 동쪽으로 이동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아, 일시 길림 부근에 머물러 있었다. 이곳에서 제5지대는 두 분조로 나뉘어, 한 조가 먼저 연길에

13) 徐基述, 『흑룡강 조선민족』(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1988), 84 쪽

14) 李義一·徐明勛, 앞의 책, 12~13쪽.

15) 위의 책, 17쪽

진주하기로 하였다. 12월 8일 문정일이 인솔한 선견대 30여 명의 간부가 연길에 입성하였다. 이익성과 박일우가 인솔하는 다른 한 부대는 12월 31일 연길에 도착하였다.¹⁶⁾ 동만에 도착한 제5지대는 이전 태항산 조선혁명군정학교의 간부와 학생들로 구성된 무장대으로서 대원은 900여 명이었다.¹⁷⁾

제5지대가 연변에 도착했을 때, 연변에는 이미 姜信泰·雍文濤가 조직한 중공산하의 무장대오가 있었다. 강신탈은 이전 동북항일연군이 소련경내에서 야영훈련을 할 때 A영 당위서기를 맡았으며, 소련 원동방면군 제88려 4영대위 영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9월 18일 그는 朴洛權·崔明錫 등과 연길에 도착하였으며, 소련군 경비사령부 부사령원이란 신분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¹⁸⁾ 그는 이전 龍井別動隊를 연길현 경비대대로 개편하여, 5個團 규모의 건군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옹문도는 연안에서 온 간부로 연변지위 제1임서기를 맡기로 하고, 11월 12일 연길에 도착하였다.

11월 15일 중공 중앙동북국의 결정에 따라, 중공연변지방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雍文濤·姜信泰·陳坦·云靑·朴一禹 등 7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옹문도가 서기를 맡았다. 23일 동북인민자치군 연변군분구도 성립되어, 강신탈이 사령원을 맡고, 옹문도가 정치위원을 맡아, 이후 조직적으로 건군활동과 匪賊討伐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용군 제5지대는 중공 연변지방위원회와 연변군분구의 통일적인 지휘를 받기 위해, 연변경비려 1단과 합병하여 15단과 16단으로 개편되었다. 15단은 의용군 출신인 전우가 團長을 맡았으며, 16단은 연변경비려의 박락권이 단장을 맡았다.¹⁹⁾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내전쟁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중공동북국의 지시

16) 김응삼·김환, 「조선의용군 제5지대」, 『중국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5: 승리』(민족출판사, 1992), 77쪽.

17) 위의 책, 77쪽.

18) 당시 강신탈을 따라 연변에 도착한 이전 抗日聯軍 戰士로는 金昌權·張靜淑·全玉順·石東洙·姜渭龍·全明洙·吳竹勛·全龍根·洪太鶴·呂英俊·吳良本·常維宣·單布天·孟昭吉·朴春日·任哲·孫長祥·明浩 등이(韓俊光·姚作起, 『해방전쟁시기의 동만근거지』(연변인민출판사, 1991), 292쪽.

19) 政協 延邊朝鮮族自治州 文史資料委員會(編), 앞의 책, 28쪽.

에 따라 동만근거지를 창설할 목적으로 吉遼軍區 吉東分省軍區를 설치하였다. 강신태가 길동분성의 군구사령원을 맡았고, 그 아래에 1·2 두 개 旅와 연길·왕청·훈춘·화룡·안도·돈화·액목 등 7개 현에 보안단 및 1개 포병영을 두었다. 병력은 20,850여 명에 이르렀다²⁰⁾

경비1려는 1946년 1월 연길에서 조선의용군 제5지대 이전 경비1·2·3·4단을 기반으로 조직되었다. 강신태가 旅長을 맡고, 唐天際가 政委를 맡았으며 徐紹華가 부여장을 맡았는데, 병력이 6,500명이나 되었다. 경비2려는 1946년 2월 돈화에서 창설되었다. 鄧克明이 인솔한 25려의 21단·73단과 돈화에 있던 1개 연대를 기초로 화룡지대의 일부분을 합하여 편성되었다. 등극명이 려장을 맡고 袁克服이 정치위원을 맡았으며, 吳恒夫가 참모장을 맡았다. 모두 6,500명의 병력이었다. 3월에는 15단도 경비2려의 일개 단으로 편입되었으며, 후에 길림군구 독립3단으로 개편되었다. 1948년 1월 동북군구 독립6사 제16단을 편입하였었으며, 1948년 11월에는 제4야전군 43군 156사 466단으로 개편되었다²¹⁾

조선의용군 제7지대는 길림에서 탄생한 조선족부대이며, 지대장에 崔明, 정치위원에 朴勛一이었다. 1945년 11월 21일 최명 등은 제5지대와 같이 길림시에 도착하여 길림보안 제7지대를 편성하였다. 12월 초 길림보안 제1총대와 제7지대는 화전에 진주하였으며, 1946년 1월 보안제7지대는 정식으로 조선의용군 제7지대로 개칭되었다.²²⁾ 3월 제7지대는 화전현 보안단으로 개편된 후, 吉南軍分區 제24려 제72단으로 개편되었다. 이 부대의 주요한 활동지역은 길남지구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조선의용군은 1945년 11월 7일 심양에서 열린 全軍大會 이후 일부 將領만 북한으로 간 후, 대부분의 병력은 중국동북지역에 남아 중공 동북민주연군 소속 조선의용군 제1·3·5·7지대로 개편되었다. 이들은 남만·북만·동만으로 활동지역을 나누어, 동북 조선족집단지주지역으로 이동하여 지방 ‘민주정권’ 건설에 참가하였다.

20) 위의 책, 34쪽

21) 김응삼·김환, 앞의 글, 82쪽

22) 송무섭, 「조선의용군 제7지대」, 『중국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5: 승리』(민족출판사 1992), 94쪽

IV. 동북 조선족 집단거주지역의 政治土匪 토벌

조선의용군이 중국 동북지역에 남아 중공 東北民主聯軍으로 개편된 후, 이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동북민주연군을 도와 동북지역, 특히 조선인 집단거주지역에서 준동하고 있는 정치토비를 숙청하는 것이었다.

광복 직후, 중국 동북지역에는 정치토비들이 발호하였는데, 이들은 이전 滿洲國 시기 군대·경찰·헌병 및 지주로 구성된 무장단체였다. 이들은 일본군 패전시 민간에 흘러든 무기를 이용하여, 국민당의 위임을 받아 이른바 ‘先遣隊’, ‘挺進軍’, ‘光復軍’, ‘忠義救國軍’, ‘民衆救國軍’ 등의 명칭을 사용한 무장단체를 조직하여 주민들을 유린하고 있었다.

이들의 활동이 극성을 부리던 시기는 1945년 11월 국민당군이 동북지역에 진출하여 1946년 5월 소련군이 동북에서 철수하기까지, 약 반년 동안이었다. 통계에 의하면, 1945년 12월에 이르기까지 동북지역에서 활동하는 ‘匪幫’의 규모가 10만 여명에 달하였으며, 이 중 연변지역에만 1만여 명이 있었다.²³⁾

정치토비로 인해 동북지역 조선인들이 입은 생명과 재산의 피해는 여타 주민들보다 심각하였다. 광복 직후 동북지역에 살고 있는 漢族과 다른 소수민족들은 국민당정부를 ‘正統’으로 인식하고 있어, 국민당에 대해 기대와 환상을 품고 있었다. 반면에 공산당과 그 군대에 대해서는 匪賊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동북지역의 조선족들은 국민당에 대한 正統意識이 희박하고, ‘민족평등정책’을 제창하는 공산당에 대해 호감을 갖고, 팔로군을 지지하였다. 사실 만주국 시기 이래 일본의 민족이간정책과 차별정책으로 인해, 동북지역의 여타 민족들은 조선인에 대해 상당한 오해를 갖고 있었다.²⁴⁾ 조선족들의 이같은 정치적 성향은 정치토비들에게 좋은 구실이 되어, 이들이 조선족에 대해 강탈과 모욕, 심지어 학살을 감행하는 원인이 되었다.

광복 직후 남만지역은 대부분 국민당의 收復地域이었으므로, 조선인들이 입은

23) 王元年, 『東北解放戰爭鋤姦剿匪史』(黑龍江教育出版社, 1990), 30 쪽 韓俊光·姚作起 앞의 책 332 쪽.

24) 이 점에 대해, 일찍 吉林省 省長을 역임한 周保中也 일제의 이간정책으로 “(만주국 시기) 조선인은 ‘2등 국민’, 중국인은 ‘3등 국민’이 되어 중·조 민족 간의 대립과 원한은 더욱 깊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周保中, 『延邊朝鮮民族問題』, 延邊朝鮮族自治州檔案館(編), 『中共延邊吉敦地委延邊專署重要文件彙編』, 제1집(1945년 11월-1949년 1월 1985), 356 쪽).

피해는 막심하였다. 대련에서 한국으로 도망쳐 나온 高元鶴은 그의 회상기 『避難記』에서, 1945년 8월 22일 대련부근 登沙河·杏樹屯 등의 마을이 匪賊들의 습격을 받았는데, 일본인은 물론이고 많은 조선인이 강탈과 학살을 당하였다고 회고하였다.²⁵⁾ 1945년 11월 어느 날 조선의용군이 청원현을 지날 때, 인근의 조선인 주민들이 달려 나와, “토비들이 수시로 습격해 와, 조선인들이 모두 죽게 되었으니 조선의용군이 남아서 보호해 달라”고 간청하였다.²⁶⁾ 이런 일은 남만지역에서 부지기수였다.

북만지역에서 조선족들이 입은 피해가 가장 심하였다. 당시 북만에 정치토비들이 가장 많았는데, 1945년 말까지 북만지역의 2/3가 정치토비들의 수중에 들어갔다.²⁷⁾ 合江지역에 있는 7, 8천여명에 달하는 세 그룹, 松江지역의 1만 2천여명에 달하는 네 그룹, 牡丹江지역에서 활동하는 4,000여명에 달하는 여러 갈래의 토비무리가 있었다.²⁸⁾

토비들은 북만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해 무자비한 강탈과 학살을 감행하였다. 1946년 5월 14일 깊은 밤 王小丁이 이끄는 200여 명의 토비들이 묵단강 북부에 위치해 있는 八達溝 조선인 마을을 덮쳤다. 이들은 촌장 장국정과 농민회 위원 김남수 등 4명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수 십명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으며, 현금 7만 원과 각종 물건들을 빼앗아 달아났다.²⁹⁾ 같은 달 26일 郭興幫이 이끄는 정치토비 700여 명이 東安鎮(현재 密山)에서 하루 사이에 수 백명에 달하는 조선인을 살해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東安 5·26慘案’이다.³⁰⁾

광복 직후 연변에는 대체로 네 갈래의 정치토비가 있었다. 錢輔興을 우두머리로 하는 三導灣 일대의 무리, 單氏 3형제(單秉鈞, 單秉仁, 單秉義)를 우두머리로 한

25) 高元鶴, 『避難記』, 『世風』, 창간호, 대전, 1946. 4, 45쪽

26) 정길운, 「동북 제7지대에서」, 『광활한 중국의 대지 우에서』(연변인민출판사, 1987), 569쪽.

27) 김옥중·이병철, 「조선족인민들이 동북해방전쟁에서의 공헌」, 『중국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5: 승리』, 59쪽

28) 徐明勛, 「解放戰爭時期黑龍江省剿匪戰爭中的朝鮮族」, 『中國朝鮮族歷史研究論叢』(II)(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1992b), 262쪽.

29) 위의 책, 262쪽

30) 徐明勛, 「북만지구 조선인민주련맹」, 『중국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5: 승리』(민족출판사 1992a), 139쪽.

安圖縣 일대의 무리, 王慶云·馬喜山·安振有 등을 우두머리로 한 汪清縣 일대의 무리, 紀大作·妖玉玲을 우두머리로 한 敦化·蛟河 등지의 무리가 그들이었다.³¹⁾

이들은 항일전쟁이 끝나자 마자, ‘민족 복수’를 해야 한다고 악언을 퍼뜨려 민족정서를 자극하는 동시에, 연변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을 강탈·학살하였다. 예컨대 1945년 11월 安振有가 이끄는 토비무리들은 왕청현 羅子溝에서 조선족 청장년 100여 명을 잔혹하게 학살하였다.³²⁾ 1946년에 들어 액목 일대의 60호 200여 명 조선족 주민들은 토비무리들의 시달림을 견디지 못해 敦化로 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도중에 토비들을 만나 양식과 옷·생활용품을 빼앗기고 나서는, 인근한 南台子屯으로 끌려갔다. 이튿날 토비들이 이들을 살해하려는 순간, 소련군과 팔로군이 도착하여 양측 간에 격전이 벌어졌다. 와중에 조선족 주민 12 명이 총에 맞아 쓰러졌는데,³³⁾ 이런 불상사는 부지기수였다.

이처럼 광복 직후 조선인들이 정치토비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학살 강탈당하게 되자, 조선인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으며, 조선인들은 한반도로 귀환하거나 대·중도시로 몰려가서 겨우 연명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동북민주연군은 조선의용군에게 민주연군의 주력부대를 도와 토비를 숙청하도록 명령하였다. 남만 지역에서 조선의용군 제1지대가 정치토비들을 숙청하기 위해 벌인 가장 큰 전투는 1946년 通化에서 발생한 ‘2·3’ 폭동을 진압한 것이다. 광복 직후 通化에는 일본군 패전병 3천 명과 일본인 거주민 1만 5천여 명이 있었다. 1946년 2월 3일 이들은 국민당 지하조직과 손 잡고 폭동을 일으켜, 통화에 세워진 중공 ‘민주정권’을 무너뜨리고, 통화와 장백산지역에 이른바 ‘東邊導中日聯合政府’를 세우려 계획하였다.

조선의용군 제1지대는 이 폭동을 진압한 주력부대였다. 이들은 4배나 많은 상대와 싸워 끝내 ‘민주정권’을 지켜 냈으며, 중공 동북국과 요녕성위원회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³⁴⁾ 이후 제1지대는 李紅光支隊로 개칭되면서, 臨江·撫淞·蒙江 등지의 밀림을 무대로 많은 전공을 올렸다. 통계에 의하면, 1946년 여름부터 가을

31) 政協 延邊朝鮮族自治州 文史資料委員會(編), 앞의 책, 58-59 쪽

32) 김옥중·이병철, 앞의 글, 59 쪽

33) 김충묵, 「남태자사건」, 『중국조선민족 발자취 총서5: 승리』, 191 쪽

34) 崔海岩, 앞의 책, 35 쪽

까지 이흥광지대는 토비 500여 명을 소탕하였다. 그 결과 장백산지역에서 활동하던 토비들은 거의 와해되었으며, 중공은 장백산근거지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³⁵⁾

북만에서 조선의용군 제3지대는 木蘭·尙志·八家子·新安·五常·馬蓮河·鹿導·細麟河·西東安·牡丹江·濃河·舍利屯·永平崗 등의 전투를 치른 결과, 1947년 7월에 이르러 정치토비를 거의 숙청하였다.

五常縣城 保衛戰에서 제3지대 대원들은 용맹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오상현은 拉濱線에 위치해 있는 중심도시로써, 동쪽은 尙志縣과 대밀림으로 연결되어 있어 토비들의 주된 활동무대였다. 1946년 1월 29일 주민들이 설을 준비하는 틈을 타서, 수 백명의 토비들이 성내에 잠복해 있는 토비와 내통하여 오상현 ‘민주정관’을 공격하였다. 현성의 서문과 북문을 지키고 있던 제3지대 대원들은 화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토비들을 물리쳤다. 탄약이 떨어지자 몽둥이·칼·도끼 등으로 끝내 성문을 지켜 30여 명의 토비를 사살하였다.³⁶⁾

하지만 舍利屯戰鬪에서는 비교적 많은 희생자를 냈다. 1946년 9월 12일 제3지대 제3대대 7중대는 사리둔으로 출동하라는 지시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 정보가 유출되어 도중에 토비들의 매복 습격을 받아, 중대장 이영택, 부중대장 박만근 등 21명이 사망하였다.³⁷⁾

한편 연변지역에서의 토비 숙청은 주로 조선의용군 제5지대가 참여하고 있던 延邊 警備一旅가 맡았다. 1945년 12월 25일 오전 松下坪炭鑛에서 郭迎春이 이끄는 무리를 소멸하였고, 1952년 1월 14일에는 樺甸縣으로 도망갔던 郭迎春도 체포하여 총살해 버렸다.³⁸⁾ 그리고 1946년 1월 26일에는 三導灣에서, 장춘으로 도망친 일부를 제외하고, 錢興幫 무리를 대부분 소멸하였다.³⁹⁾ 1946년 3월 16일에는 안도현에서 또 전씨 형제 무리도 전부 소멸시켰다.⁴⁰⁾

35) 위의 책, 67쪽.

36) 徐基述, 앞의 책, 91쪽.

37) 위의 책, 96쪽. 1957년 清明節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정부는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文化公園에 ‘二十一名烈士之墓’를 세웠다. 1974년 7월 다시 열사들의 유골과 기념비를 현재의 哈爾濱烈士陵園으로 옮겼다.

38) 韓俊光·姚作起, 앞의 책, 333쪽.

39) 政協 延邊朝鮮族自治州 文史資料委員會(編), 앞의 책, 121쪽.

40) 위의 책, 123쪽.

이렇듯 광복 직후 조선의용군이 동북민주연군과 연합하여 조선인 집단거주지역에서 정치토비를 소탕함에 따라, 조선인의 생활도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였으며, 연변·북만·남만 등지에서 새로운 생활터전을 닦을 수 있게 되었다

V. 東北民主政權 건설 참여

조선의용군은 동북민주연군과 연합하여 정치토비를 소탕하는 동시에, 조선인 집단거주지역에서 ‘민주정권’을 건립하거나 공산주의단체를 설립하여, 조선인들의 생존권리와 정치권리를 보장해 주었다.

남만에서 조선의용군 제1지대는 이 지역에 남아 있는 독립동맹 맹원들과 협조하여, 새로운 공산주의단체를 조직하고 ‘민주정권’ 건설에 동참하는 동시에 남만 지역 조선인들의 기본적인 정치권리를 보장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전 독립동맹 주석인 金料奉과 崔昌益·韓斌 등 집행위원과 70여 명의 간부들이 북한으로 돌아간 후, 남만에 남은 대부분의 맹원들은 1946년 11월 10일 심양에서 독립동맹 남만사업위원회(이하 ‘남만위원회’)를 건립하여, 조선의용군 제1지대 정치위원인 方虎山이 주임을 맡았다. 이를 계기로 남만위원회는 조선독립운동단체가 아니고, 중공의 지도 하에 국민당통치를 뒤엎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을 위해 노력하는 남만지구의 30만 조선족을 대표하는 단체가 되었다.⁴¹⁾

남만위원회는 중공동북국의 지시에 따라 조선의용군 제1지대의 활동을 도와, ‘4대 임무’를 설정하였다. 4대 임무란 첫째, 부대를 남만의 조선족 집단거주지역에 파견하여 중공의 정책을 선전하고, 특히 민족평등과 민족단결 정책을 광범위하게 선전한다. 둘째, 하루속히 군대를 확충하여 국민당의 공세에 대처한다. 셋째, 대중적인 성격의 독립동맹을 정비하여, 중공의 영도를 받아 조선민족을 위해 활동하고 민족단결을 강화한다. 넷째 조선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집단거주·생산·생활 등을 안정시킨다는 것이었다.⁴²⁾

41) 최강·장예신, 「남만지구 동북조선인 민주련맹」, 『중국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5: 승리』(민족출판사, 1992), 115쪽.

42) 崔海岩, 앞의 책, 28쪽.

네 가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남만위원회에서는 남만의 조선족 집단거주지역에 간부를 파견하였다. 1946년 2월 말 남만의 무순·개원·철원·신빈·환인·봉황·영구·안동·관전·청원·유하·해룡·반석·휘남·통화·집안 등 20여 곳에 남만위원회 조직이 설립되었다. 각지 남만위원회의 활동 결과 주로 조선인들로 이루어진 농회·부녀회·청년회 등의 단체들이 건립되었고, 많은 야학도 생겨났다.

1946년 초 조선의용대 제1지대를 이흥광지대로 개칭한 후, 남만위원회는 통화에서 縣委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를 소집하여, 독립동맹 남만사업위원회를 ‘통화지구 동북조선인민 민주연맹사업위원회’로 개편하였다. 4월에는 또 동북 조선인민 민주연맹 요녕성사업위원회(이하 ‘민맹 요녕성위원회’)로 다시 개편하였으며, 방호산이 주임직을 맡았다.⁴³⁾

민맹 요녕성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통화지구의 조선인민 민주연맹 사업위원회에서 발표한 ‘선언’에서 명확히 제기되었다. “동북조선인민 민주연맹은 조선의 완전 독립과 해방을 지원하고, 동북 200 만 조선인민의 생명·재산과 우리의 행복을 보호하며, 동북인민민주정부를 강력히 지지하고 옹호하며, 민주적인 새중국 동북을 건설하고 조·중 두 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 분투할 것이다.”

‘선언’은 “민맹 요녕성위원회”의 사상·이념과 추구하는 목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⁴⁴⁾ “조선의 완전 독립과 해방을 지원한다”는 항은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위하여 공헌한다는 것인데, 이는 동북지역 조선인들의 남북통일에 대한 갈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립동맹 북만특별위원회(이하 ‘동맹 북만위원회’)는 1945년 8월 20일에 하얼빈에서 성립되었으며, 지부원은 정경호·현정민·김용진·조경형·김택명 등 5명으로 구성되었고, 조선의용군 제3지대 지대장인 김택명이 서기를 맡았다. 동맹 북만위원회도 활동목표로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첫째, 북만 각지에서 박해를 피해 하얼빈에 피난온 조선인 난민들을 조속히 구제할 것, 둘째, 조선인이 비교적 많이 살고 있는 오상·라림·아성현 등에서 독립동맹 위원회와 건국청년회를 조직할 것, 셋째, 정치적으로 국민당에 소속된 고려인회 및 고려청년단(나중에 한국회·한국청년회로 개편), 大同民主黨 등과 이념투쟁을 벌여 더욱 많은 조선인 민중을 쟁취하

43) 최강·장예신, 앞의 글, 116쪽.

44) 崔海岩, 앞의 책, 172~173쪽.

는 것 등이었다.

북만에서 중공의 영향 하에 있는 동맹 북만위원회와, 국민당의 영향 하에 있는 고려인회 사이의 이념 대립과 사상투쟁은 치열하였다. 예컨대 1945년 8월 말부터 하얼빈시 금강소학교에서 진행된 두 파의 공개적인 이념논쟁은 해방된 조선인들이 정치적으로 공산당을 따라 가느냐, 아니면 국민당을 따라 가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논쟁에는 매번 참석한 조선인 청중이 수 백명에 달했는데, 하얼빈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근 여러 현의 조선족도 참석하여 그들의 논쟁을 청취하곤 하였다.⁴⁵⁾

고려인회 등은 해방된 조선인들은 반드시 소련과 공산당에 반대하고, 장개석을 옹호하며 국민당을 따라 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하지만 김택명을 비롯한 동맹 북만위원회 간부들은 강력히 이에 반대하고, 중공을 받들고 인민 민주정권을 건립하는 것이야말로 동북지역 조선인의 완전한 독립과 해방을 취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⁴⁶⁾

중국 국내전쟁의 형세에 따라, 북만 각지의 조선족 군중단체들은 통일을 강화하고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단체의 구성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하여 1946년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하얼빈시에 있는 조선의용군 제3지대 사령부에서 북만지구 조선인 민주연맹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북만 각지 조선족단체인 ‘민주동맹’ 혹은 ‘민주대동맹’ ‘민주연맹’ 등을 일원화하여 ‘북만지구 조선인 민주연맹’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북만지구 조선인 민주연맹이 북만지구 조선인들의 정치·경제·문화 등 각 방면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이 대회에서는 민주연맹 강령도 통과시켰다. 강령의 주요 내용은 “북만지구 에 거주하는 조선인민들은 일심단결하여 동북 ‘민주정권’을 옹호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동북정권을 건설하기 위하여 분투한다” “동북 ‘민주정권’과 배합하여 파쇼잔여세력을 철저히 숙청하고, 북만지역 조선인민들의 정치·경제·문화 이익을 위해 분투한다” “조선국내 인민들의 민주운동을 지원하고, 조선의 완전독립을 쟁취하고, 신민주주의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헌한다”는 것이었다.⁴⁷⁾

45) 조경형·徐明勛, 「독립동맹 북만특별위원회」, 『중국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5: 승리』(민족출판사, 1992), 129 쪽.

46) 李義一·徐明勛, 앞의 책, 7쪽.

한편 1945년 9월 19일 延吉에서는 勞農靑代表大會를 소집하고 延邊勞農靑總同盟執行委員會를 조직하여, 노동자·농민·청년 등 군중단체를 통일적으로 지휘하도록 하였다. 10월 26일 연변노농청동맹집행위원회는 확대회의를 소집하여, 중공 연변위원회의 건의를 근거로, 연변노농청동맹을 延邊人民民主大同盟(이하 ‘연변대동맹’)으로 개칭하였고, 지회겸·이상호·최문호 등 28명을 집행위원으로 선출하였다.⁴⁸⁾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의 기초 위에 국민대회를 소집해야 하고, 민족연합정부의 건립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 “각 시·현 국민회의는 민주선거를 통하여 민주자치정권을 건립해야 한다,” “교육을 보급시키고 민족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⁴⁹⁾

연변대동맹은 中共延邊地區委員會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으며 연변지방정권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연변대동맹은 연변의 각 도시 및 鄉에 지방조직을 설치하고, 중공과 조선인 민중을 연결시키는 매개로 역할하였다. 중공도 연변대동맹의 기층조직을 통해 중공의 정치주장과 민족정책을 홍보하였다.

특히 연변지역에서 중공의 기층조직과 기층‘민주정권’이 정식으로 건립되기 이전 시기에 연변대동맹의 각급 조직이 연길·화룡·왕청·훈춘 4개 현에서 村·區·縣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민정을 관리하고 생산을 조직화하고 교육활동을 펼쳤으며, 중공을 도와 난민을 구제하고 敵僞 우두머리와 漢奸走狗를 청산하는 등의 투쟁을 전개하였다.⁵⁰⁾

1946년 8월에 이르러 연변의 도시와 각 향에 ‘민주정권’이 건립되자, 연변대동맹은 해산을 선언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조선의용군은 동북지역 각지에서 중공이 지도하는 민주대동맹을 도와 ‘민주정권’ 건설에 참가하는 동시에, 새로 건립될 ‘민주정권’을 보위하고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47) 徐明勛, 앞의 글(1992a), 135 쪽

48) 韓俊光·姚作起, 앞의 책, 462 쪽.

49) 이창역·요작기, 「연변인민민주대동맹」, 『중국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5: 승리』, 103~104 쪽.

50) 韓俊光·姚作起, 앞의 책, 463 쪽.

VI. 북한 인민군에의 합류

1949년 중국국내전쟁이 끝날 즈음 북한정권의 요구에 의해 조선의용군의 후신인 중국인민해방군 제4야전군 소속 제164·166사와 독립155사의 조선족 지휘관과 사병들은 북한 인민군에 소속되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이들은 북한의 국방건설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인민해방군 제4야전군에 소속된 조선인부대는 조선의용군을 바탕으로 발전한 것이었다. 이전 이흥광지대를 개편한 제166사, 제3지대를 개편한 송강군구 독립제8단, 후에 길동경비사령부의 조선족부대와 목단강 각지에서 온 조선족부대 독립14단을 합병하여 동북인민혁명군독립11사로 되었다가, 다시 개편된 중국인민해방군 육군보병 제164사, 동만지구의 제5지대와 기타부대를 개편하여 길동경비 제1·2旅로 되었다가, 나중에 鄭州에서 개편된 독립 155사 등이 그러하다.

제4야전군 조선인부대가 북한인민군으로 개편된 것은 1949년 7월부터였다. 1949년 4월 말 김일성은 북한인민군 정치부 주임인 金一을 비밀리에 중국에 파견하였다. 김일은 심양에서 高崗을 만나 중공중앙과 연락을 취하였다. 북경에 도착한 김일은 朱德 및 周恩來와 네 차례 만났고, 毛澤東과도 한 번 만났다. 그는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에게 중국인민해방군에 편입되어 있는 조선인 사병을 북한정부로 넘겨주도록 요구하였으며, 조선의 정세와 東方情報局 설립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모택동은 김일에게 “중국인민해방군 내에 조선인으로 이루어진 師가 3개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개는 瀋陽과 長春에 주둔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한창 작전 중에 있다. 중국은 어느 때든지 동북에 주둔한 두개 師를 장비 일체와 함께 조선정부에 넘길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개 師는 전투가 끝난 다음에야 남방에서 돌아 올 수 있는데, 적어도 한 달후에야 이동해 올 수 있다”고 하였다.⁵¹⁾ 회담 후 모택동은 고강에게 심양과 장춘에 주둔해 있는 두개의 조선인 師를 1949년 7~8월에 귀국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모택동이 말하는 심양과 장춘에 주둔한 두개 사란 바로 李德山(金昌德)이 師長인 164사와 방호산이 사장인 166사인데, 이들은 1949년 7월 북한으로 이동하였

51) 沈誌華, 『毛澤東·斯達林與朝鮮戰爭』(廣東人民出版社, 2004), 185~186 쪽

다. 귀국 시 164사의 인원은 10,821명, 166사의 인원은 10,320명이었다.⁵²⁾ 남방에서 작전 중이던 조선인 부대를 합하면 37,000여 명에 이른다.⁵³⁾

방호산이 이끈 제166사는 丹東에서 압록강을 건너 북한 경내로 들어 갔다. 북한에 도착한 후 이들은 조선인민군 제6사단으로 개편되었고 방호산이 사단장을 맡았다.⁵⁴⁾ 주로 조선의용군 제3지대로 이루어진 중국인민해방군 제64사는 遼沈戰鬪에 참가한 후, 이덕산의 인솔 하에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장춘을 떠나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會寧을 거쳐 1949년 8월에 羅南에 도착하였고, 나중에 조선인민군 제5사단으로 개편되었으며, 이덕산이 사단장을 맡았다.⁵⁵⁾

1950년에 들어 다시 중국인민해방군 제4야전군 소속 잔류 조선인부대의 귀국 문제가 제기되었다. 제4야전군 사령관인 林彪는 모스크바를 방문 중이던 모택동에게 전보를 보내 중국인민해방군 가운데 16,000여 명의 조선인으로 이루어진 부대가 있는데, 인민해방군이 華南지역으로 진군하자, 조선인대원들 내부에서 정서적 동요가 생겨, 일부는 조선으로의 귀국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당시는 중국 국내전쟁이 곧 종결될 시점이었으므로, 임표는 이들을 한 개 師 혹은 4~5개의 團으로 편성하여 조선으로 내보낼 것을 희망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모택동의 동의 하에, 중국정부는 김일성에게 전보를 보내 “작전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중국인민군대 가운데 조선족부대는 점차 여유를 가질 시간이 많게 되었으며, 만일 조선정부가 허락한다면 이 부대를 조선에 내보낼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김일성은 즉시 동의를 표시하였다. 그리하여 중국해방군 각 부대에 분산되어 있던 조선인 병가들을 한 곳으로 집결시켜, 한 개의 步兵師로 편성하고, 그 아래에 두 개의 단을 두며, 나머지 병력은 오토바이團과 機械旅로 보충하였다.

52) 이종석, 앞의 책, 106쪽.

53) 위의 책, 107쪽.

54) 김중생, 앞의 책, 146쪽.

55) 위의 책, 148쪽. 164사의 귀국 과정은 166사에 비해 조금 복잡하다. 166사는 사장과 부사장 등 몇 명만 중국인이기 때문에 귀국 과정이 쉬웠지만, 164사는 대대장급 50%, 연대장 이상 70%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인민군 편성에 애로가 많았다. 입북을 위해서는 師長을 비롯한 많은 중국인 간부 및 사병들을 다른 부대로 보내고, 빈자리를 조선인으로 채우는 등, 부대 개편과 재배치가 필요하였다. 염인호의 연구에 의하면, 이를 위해 1949년 7월 14일에서 7월 22일까지 1577명의 연변 출신 신병이 이 부대에 편입되었다고 한다(염인호, 앞의 논문, 180~181쪽 참조).

1950년 1월 20일 북한인민군 작전부 부장이며 전 연변군분구 사령이었던 金光俠이 중국에 와서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인 聶榮臻과 회동하고, 그 해 3월 이전에 제4야전군 내의 조선족 사병들이 모든 장비를 휴대하고 북한인민군으로 개편키로 합의하였다. 1월 22일 섭영진은 이들을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주덕과 劉少奇에게 보고하였다.⁵⁶⁾

1950년 1월 말부터 중국인민해방군 제4야전군 각 부대와 특종병과에 소속되어 있던 조선인 지휘관과 사병들은 河南省 鄭州에 집결하였는데, 그 수효는 18,000여 명을 헤아렸다. 3월 중순 중공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독립55사 편성식이 거행되었다. 155사는 4개 보병단, 1개 포병단 및 工程營·통신營·反탱크營·警衛中隊·야전병원 등으로 이루어졌고, 師部機關에는 정치부·참모부·공급부가 설치되었다. 全宇가 師長, 池炳學이 참모장 겸 포병단 단장, 楊根이 정치부 주임, 金允植이 공급부 주임을 맡았다.⁵⁷⁾

조선인부대는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광복 직후 중국에서 지방토비 숙청, 三下江南, 吉林包圍運動戰, 長春包圍戰, 遼瀋戰鬪, 平津戰鬪 및 長江을 건너 중남·서남지역의 전투에 참가하여 공훈을 세운 부대였다. 이들 중 큰 공을 세운 인물이 2,000여 명,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이 100여 명이었고, 거의 80%가 중공 당원이었다.⁵⁸⁾

북한 측의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4월부터 정주를 떠나 산해관·심양·단둥 등지를 거쳐 조선으로 들어가, 4월 18일 원산에 도착하였다.⁵⁹⁾ 이후 이들은 조선 인민군 제7사단으로 개편되었다가, 다시 12사단으로 개편되었다.⁶⁰⁾

중국인민해방군 가운데 조선족 병력이 귀국한 것은 광복 직후에도 있었다. 그 수효가 많지는 않았지만, 항일전쟁 종료 직후 武亭이 조선으로 나갈 때도 1,000여 명의 조선족 대원들로 이루어진 한 개 단을 인솔하여 귀국하였던 것이다.

56) 周均倫, 『聶榮臻年譜』(上)(人民出版社, 1999), 525 쪽

57) 최희택, 「독립15사를 편선하면서」, 『중국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5: 승리』(민족출판사, 1992), 692 쪽. 여러 자료에 의하면, 하남성 정주에 집결한 조선족부대의 규모는 14,000 명 15,000 명 16,000 명 혹은 18,000명 등으로 나타나는데, 본 논문에서는 최희택의 주장을 따랐다

58) 위의 책, 692 쪽

59) 聶榮臻, 『聶榮臻回憶錄』(解放軍出版社, 1982), 774 쪽, 沈誌華, 앞의 책, 188 쪽.

60) 이종석, 위의 책, 109 쪽.

끝으로 중국인민해방군에 소속되었던 조선인 사병들이 북한인민군으로 개편되는 과정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조선인부대가 귀국한 것은 중국 지도자들이 군사적인 수단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북한지도자들의 염원에 찬성하고 지지하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는 이른바 ‘국제주의’ 입장에서 북한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동정과 지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고, 이보다 더 주요한 원인은 중국인민해방군 내의 조선족 장병들이 중국혁명의 종결에 즈음하여 조국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강렬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측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내전쟁이 거의 끝나고 평화가 다가온 이상, 더 이상 많은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군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써, 조선의용군 출신 조선족 장병들의 북한 귀환에 동의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하겠다.

VII. 맺음말

상술한 바와 같이, 항일전쟁의 종료와 함께 조선의용군은 중공 팔로군 총사령 朱德의 명령에 따라, 화북지역에서 동북지역으로 진출하였는데, 이들에게는 두 개의 사명이 부과되었다. 하나는 소련군과 연합하여 일본군 및 만주군 잔여세력을 소멸하고 동북지역의 조선인을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에 진출하여 조선의 완전 독립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瀋陽에 도착한 후, 조선의용군은 이러 저러한 원인으로 두 개 부분으로 갈라지고 말았다. 조선독립동맹의 주요 간부와 조선의용군 일부 지휘관은 김두봉·무정 등의 인솔 하에 입북하여 북한정권 건설에 참여하게 되었다.

중국동북지역에 남게 된 대부분의 조선의용군 장병들은 중공산하 東北民主聯軍으로 개편되어, 제1·3·5·7대로 나뉘어져 남만·북만·동만 등 조선인 집단거주지역으로 진출하여 政治土匪 소탕과 ‘민주정권’ 건설에 참여하였다.

조선의용군은 일차적으로 조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치토비를 소탕하는데 주력하였다. 광복 직후 동북지역의 조선인사회는 대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만주국시기 일본의 民族離間政策으로 동북지역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의 관계는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다. 광복 직후 정치토비들은 이런 사실을 이용하여 조선인 집단거주지역을 찾아다니며, 마음대로 강탈하고 무고한 조선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조선인들이 조국으로 귀환하였지만, 미처 귀환하지 못한 조선인들은 결국 중국동북지역의 크고 작은 도시로 몰려들어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조선의용군의 존재는 조선인들에게 구세주와 다름 없었다.

여기에서 특히 지적해야 할 점은, 당시 중공 동북국도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조선인 집단거주지역에 조선의용군을 특별히 파견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정치토비를 숙청할 때면 민족관계를 고려하여 중국인부대를 더 많이 파견한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조선의용군의 등장은 동북지역의 조선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고, 조선인사회도 점차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동북지역에서 조선인 농촌의 토지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도 실로 중공 동북국과 조선의용군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다음으로 조선의용군은 조선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남북만·동만 각지에서 ‘民主大同盟’ 등의 단체를 통해 조선인 간부를 양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민주대동맹을 통해 많은 조선인 간부가 양성되었는데, 광복 직후 동북지역 ‘민주정권’에서 조선인 간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결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광복 직후 동북지역 조선인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조선의용군 각 지대는 중국국내전쟁을 거치면서 상당한 자기발전을 꾀하였다. 중국인민해방군 제4야전군 제166·164·155사가 바로 그 후신인 것이다. 주로 조선인으로 이루어진 이 부대들은 중국해방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 그 이름을 빛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국내전쟁이 종결될 무렵, 북한정권의 요구에 의해 3개 조선인 부대는 북한으로 건너 가 북한 인민군에 편입되었다 이는 중국내전에서 승리한 중공중앙의 당연한 결정일 수도 있다.

참고문헌

-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서울: 명지출판사, 2000.
- 염인호, 「해방 후 중국동북지방 조선인부대의 활동과 북한 입국」,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서울: 나남, 2001.
- 이종석, 『북한·중국 관계(1945~2000)』, 서울: 중심도서, 2000.
- 한상도, 「조선의용군의 위상과 동방각민족반파시스트대동맹의 관계」, 『역사와 현실』 44, 2002.
- 高元鶴, 「避難記」, 『世風』, 창간호, 1946. 4.
- 김옥중·이병철, 「조선족인민들이 동북해방전쟁에서의 공헌」, 『중국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5: 승리』, 민족출판사, 1992.
- 김응삼·김환, 「조선의용군 제5지대」, 『중국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5: 승리』, 민족출판사, 1992.
- 김충묵, 「남태자사건」, 『중국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5: 승리』, 민족출판사, 1992.
- 徐基述, 『흑룡강 조선민족』,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1988.
- 徐明勛, 「북만지구 조선인민주련맹」, 『중국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5: 승리』, 민족출판사, 1992a.
- 徐明勛, 「解放戰爭時期黑龍江省剿匪鬥爭中的朝鮮族」, 『中國朝鮮族歷史研究論叢(Ⅱ)』,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1992b.
- 聶榮臻, 『聶榮臻回憶錄』, 解放軍出版社, 1982.
- 송무섭, 「조선의용군 제7지대」, 『중국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5: 승리』, 민족출판사, 1992.
- 沈誌華, 『毛澤東·斯達林與朝鮮戰爭』, 廣東人民出版社, 2004.
- 王元年, 『東北解放戰爭鋤姦剿匪史』, 黑龍江教育出版社, 1990.
- 이창익·요작기, 「연변인민민주대동맹」, 『중국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5: 승리』, 민족출판사, 1992.
- 李義一·徐明勛, 『조선의용군 3지대』,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1987.
- 정길운, 「동북 제7지대에서」, 『광활한 중국의 대지 위에서』, 연변인민출판사, 1987.
- 政協 延邊朝鮮族自治州 文史資料委員會(編), 『延邊文史資料 第9輯: 解放初期 延邊』, 遼寧民族出版社, 1999.
- 조경형·徐明勛, 「독립동맹 북만특별위원회」, 『중국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5: 승리』, 민족출판사, 1992.
- 周均倫, 『聶榮臻年譜』(上), 人民出版社, 1999.
- 周保中, 「延邊朝鮮民族問題」, 延邊朝鮮族自治州檔案館 編, 『中共延邊吉敦地委延邊專署重要文件彙編』 제1집, 1985.

주홍성, 「전투의 여정을 회억하여」, 『이홍광지대』, 遼寧民族出版社, 1992.

최강·장예신, 「남만지구 동북조선인 민주련맹」, 『중국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5: 승리』, 민족출판사, 1992.

崔海岩, 『朝鮮義勇軍第1支隊』, 遼寧民族出版社, 1992.

최희택, 「독립15사를 편선하면서」, 『중국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5: 승리』, 민족출판사, 1992.

韓俊光·姚作起, 『해방전쟁시기의 동만근거지』, 연변인민출판사, 1991.

『朱德元帥豐碑永存: 中國人民革命軍事博物館陳列文獻資料選』, 上海人民出版社, 1986.

● 투고일 : 2005. 9. 16.

● 심사완료일 : 2005. 11. 30.

● 주제어(keyword) : 조선의용군(Korean volunteer troops), 개편(recomposition),
민주연군(Democratic United Army), 민주정권(Democratic Regime),
정치토비(political brigand).